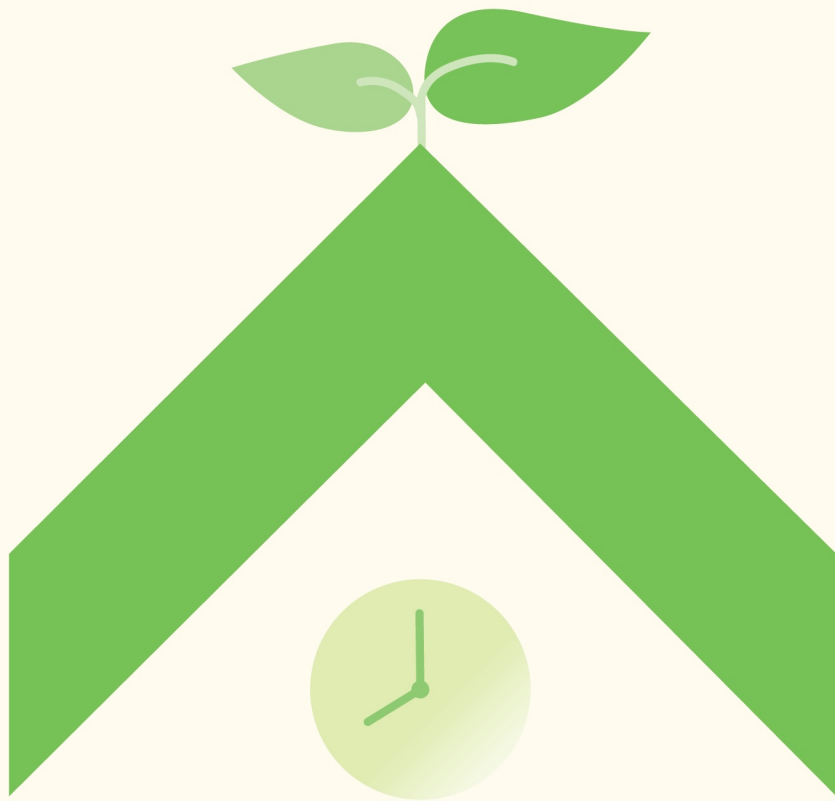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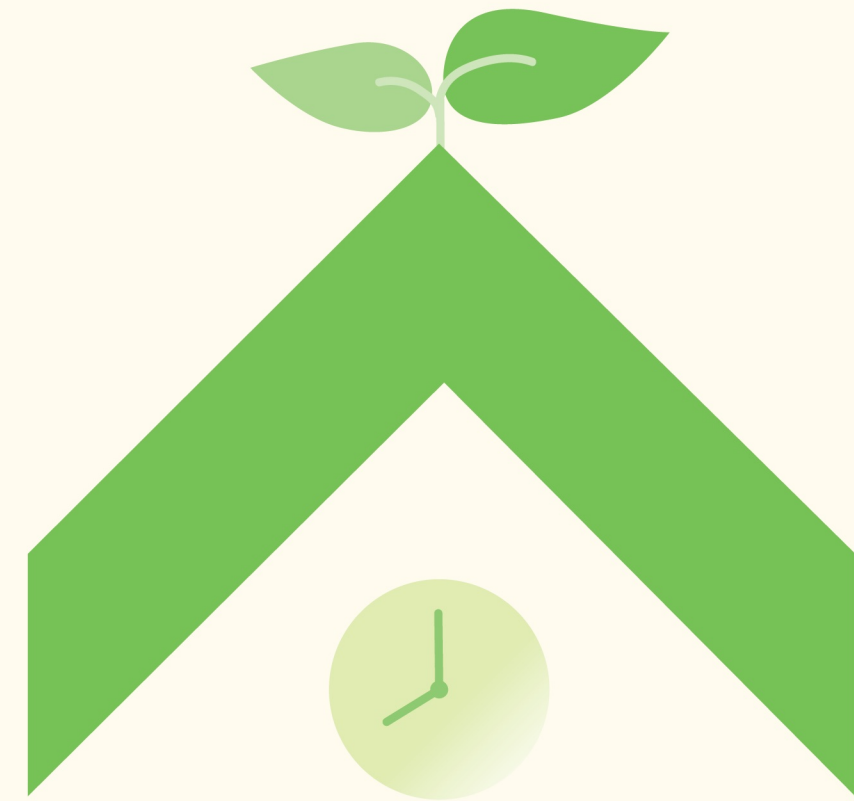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51
2025년 11월



전라남도
고흥 득량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 & ISSUE



‘시웃’의 표지는 지역 청년작가 정주는님이 고향 득량도 이야기를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 소개 : 득량도 폐교의 멈춰진 시계 위로 새싹이 돌아나는 모습을 담아, 한때 멈춰 있던 시간 위로 다시 새로운 이야기와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

CONTENTS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2 계(契)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3 바다가 변하면 섬 주민의 삶도 바뀐다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7 바다보다 깊은 이야기, 득량도의 기록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09 득량도에서는 삼시세끼 필수!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전화: 061-286-6764 *이메일: fun1015@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 박하린 섬 사진 작가
- 정주는 현대미술 작가
- 이경완 고흥군 득량도 서계회 회장
- 김연배 고흥군 득량도 관청마을 이장
- 이수자 고흥군 득량도 관청마을 주민
- 정인곤 고흥군 득량도 선창마을 이장
- 고흥 득량도 득량5호 장현철 기관장 겸 사무장
- 고흥군 도양읍사무소
-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발행처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김신연, 정태균, 박하린, 김준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 함께 살아가는 약속, 득량도의 하루 속에서 이어지다
김연배 님

15 섬 없이 흘러온 한 사람의 섬살이
정인곤 님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9 1월부터 12월까지,
고흥 득량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20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21 고흥 득량도 투어가이드

23 권있다! 소문내기 금지!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27 한국섬뉴스와 함께하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28 이달의 섬코디네이터 소식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웃'이 궁금하다면?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계(契)

▲ 고흥 득량도 관청마을 (2025년 10월 15일 촬영) ©박하린

계(契): 섬마을 공동체를 이어온 연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함께 사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섬마을 주민들은 협동과 연대 없이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웠다. 그런 삶의 방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린 것이 바로 '계(契)' 조직이다.

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모임이 아니다. 이는 섬마을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전통적인 상호부조 시스템이다. 일정한 인원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아, 돌아가며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이 조직은, 그 자체로 협동과 신뢰의 상징이었다.

갑작스러운 장례나 혼례, 집수리 같은 현실 속에서 계는 누군가의 위기 순간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경제적 안전망이 되었고, 때로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계가 가진 힘은 단지 경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하고, 이웃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나누며 단절된 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이자 공동체 정신을 지켜내는 문화적 기반이다.

계의 형태도 다양했다. 동(洞)계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었고, 상여계는 장례 때 상여를 함께 메기 위한 조직이었다. 목(木)

계는 할당된 의무인 목재를 공동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신앙 계는 마을 제사나 당제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심지어 제방을 쌓아 간척지를 조성하는 언(堰)계, 학교 설립과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학(學)계[서(書)계]도 존재 했다. 그만큼 계는 섬마을 삶의 모든 순간과 맞닿아 있었다.

시대는 변해 금융 접근성이 좋아지고, 다양한 공공제도가 생기면서 전통적인 계의 기능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일부 섬마을에서는 여전히 선박 공동 운영, 지역축제 준비, 전통 문화 보존 등 새로운 목적으로 재구성되어, 여전히 섬사람들의 일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본질은 늘 같았다.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계가 오랫동안 사랑 받아 온 이유이며, 섬마을 공동체가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이다. 섬마을 공동체가 유지되는 '공존의 기술'이다.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바다가 변하면 섬 주민의 삶도 바뀐다”

김준

섬문화답사기 저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

득량만은 고흥, 보성, 장흥을 품은 바다다. 이웃한 여자만과 달리 큰 바다와 접한 나들목이 넓고, 동으로는 여자만, 서로는 강진만이 있다. 그 사이로 완도와 나로도를 중심으로 금당도, 거금도, 평일도, 생일도, 청산도, 거문도까지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득량도는 득량만 안에 중심이며, 만 안쪽에 우도가 있다.

득량도는 조선시대 장흥부였다가, 완도군이 설군되면서 완도에 포함되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흥군 도양읍에 편입되었다. 섬에는 성재봉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 관청마을과 선창마을이 있고, 두 마을을 합해 득량리라 한다. 한때 두 마을은 1,000여 명이 거주했지만, 70여 명이 살고 있다. 득량이라는 지명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식량을 구했다는 설과 성재봉에 마름을 쌓아 군량미로 속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성재봉 정상에 득량성 흔적이 있고, 그 안에 조선 수군과 이순신 장군이 마셨다고 전하는 장군샘이 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과 득량도를 잇는 뱃길이 열리기 전에는 10리쯤 되는 가장 가까운 도양읍 장수로 나룻배를 타고 오갔다. 생필품은 4일과 9일 열리는 15리쯤 떨어진 보성 회천장을 이용했다. 장날이면 장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모두 함께 나갔다. 녹동장이 크고 상설점포들도 있었지만, 30리나 떨어져 있었고, 여객선이 없었다.



▲ 관청마을 앞바다 ©박하린



선창마을에서 바라본 앞바다 ©박하린 ▲

Story 1.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시간

관청마을은 갯벌이 발달한 마을이며, 멀리 금당도와 거금도를 마주하고 있다. 선창마을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고, 장흥 수문리와 보성 울포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탓에 관청마을은 바지락과 꼬막 등 패류양식을 많이 했고, 선창마을은 키조개와 새꼬막은 물론 주꾸미, 꽃게, 전어 등 통발과 자망을 이용한 어업도 활발했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다. 선창마을 포구에는 물을 오갈 때나 간단한 이동에 필요한 선외기 몇 척만 남아 있을 뿐이다. 관청마을도 어선 두어 척만 남아 반찬거리로 그물을 놓을 뿐이다. 득량도 어민들이 어선을 감척하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멈춘 것은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니다.

한때 참돔, 전어, 송어, 주꾸미, 꽃게, 병어, 장어 등 돈이 되는 것이 잡혔지만, 이제는 그물, 연료, 미끼 등 조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주민들은 고흥 간척지가 조성된 이후 시나브로 어획량이 줄었다고 한다. 득량만 안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예당간척지와 1990년대 건설된 고흥만방조제가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간척지가 조성된 후 물길과 퇴적환경과 수온이 변하기 시작했다.



▲ 선창마을에서 관청마을로 향해 바다를 건너는 득량 5호

어선어업은 거의 하지 않고, 마을어업으로 새꼬막과 해삼이 어촌의 명분을 이어가고 있다. 새꼬막은 참꼬막에 비해 수심이 깊고 항상 물에 잠긴 갯벌에 서식한다. 참꼬막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새꼬막을 판매해 마을 살림을 하고, 연말에는 주민들이 나누어 살림에 보탠다. 해삼어장도 같은 방식으로 했지만, 몇 년 전부터 도선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여객선이 운영되지 않는 섬에서 도선은 주민들의 발이다. 옛날에는 나룻배나 도선 운영을 전적으로 섬 주민들이 책임졌다. 봄과 가을이면 가구와 가족 수를 고려해 필요한 비용을 모았다. 그러다가 도선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해삼 밭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과 나누지 않는 대신에 도선운영에 사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행정에서 도선과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여전히 해삼밭은 도선운영을 위해 적립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다. 두 마을이 각각 독립해 마을을 운영하지만, 도선만큼은 함께 참여한다.

섬과 육지를 잇는 뱃길은 섬 주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육지라면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 차원에서 교통문제에 일찍 나섰지만 섬은 지금도 이동권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섬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야 했다. 그들이 기댄 곳은 바다였다. 제주도는 물질을 하는 해녀바당에서, 진도나 신안에서는 미역밭에서, 갯벌이 발달한 곳에서는 바지락밭에서, 김 양식을 많이 하던 곳에서는 행사료에서 비용을 마련했다.

▼ 득량 5호를 기다리며 관청마을 선착장에 모여 있는 주민들



Story 2. 섬길 단상

▲ 관청마을 선착장을 지나 걷다 만나는 벽화

길은 득량도에서 유일하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다. 섬에서 길은 육지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차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섬 주민들은 그 길을 따라 마지막까지 논과 밭을 붙잡는다. 또 여행객이나 방문객의 목적지이자 즐기는 공간이 된다. 그 길을 걷다 보면 한 방송사에서 촬영한 '삼시세끼', 영화 '순정'의 흔적도 만날 수 있다. 두 마을은 작은 규모지만 논이 있었다. 하지만 식량을 늘 부족했고, 어느 섬이 그렇듯이 고구마로 식량을 대신했다.

관청마을 앞에 있었던 논은 대부분 묵혀져 풀과 나무가 자라고 역새가 자라는 습지로 바뀌었다. 선창마을 뒤에 있던 논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하늘을 쳐다보고, 성재봉에서 내려온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던 천수답이다. 당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비탈진 곳에 있는 밭도, 가까운 곳에 논도 묵혀진 지 오래되었다. 다만 두 마을을 오가는 길을 따라 양측에 있는 밭들은 유자나무가 심어졌다. 고흥을 상징하는 유자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기 때문이다. 섬에서는 생산도 문제지만 유통판매가 더 중요하다. 육지와 달리 직접 가지고 가서 팔 수 없다. 다행스럽게 뱃길로 유통이 가능한 녹동까지 하루에 두 번 오갈 수 있어 가능하다. 섬에서 농사를 짓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유통판매가 가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길은 안정된 뱃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업주기나 시간에 맞춰 뱃길이 열리고 닫혀야 한다. 하루빨리 안정되고 안전한 뱃길을 위해 여객선 완전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다.



▲ 득량리마을회가 운영하고 있는 득량 5호 ©박하린



▲ 관청마을 선착장에서 바라본 득량도의 마을

지난 10년 사이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을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후 득량도는 어떤 모습일까. 어느 섬이나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예는 찾기 어렵다. 섬에 살았거나, 득량만 주변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 한둘 있다. 물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섬의 현실이다. 태안이나 서산이나 당진, 인천 경기권에 있는 섬이라면 다르다. 하지만 섬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 섬 현실은 다르다. 섬을 되살리겠다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최근 관청마을에는 캠핑장과 마을 펜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선창마을에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객을 위한 시설물을 마련했다. 관청마을 앞에는 호젓한 모래밭도 있고, 해안에 득량만을 보며 걷기 좋은 해안 데크길도 있다. 이제 여행객만 찾아오면, 캠핑하는 사람만 오면 된다. 이 일을 주민들이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이제 섬은 섬 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섬을 바꿔야 할 것이 아니라 시선과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다.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선창마을에서 바라본 고흥 득량도 (2025년 10월 15일 촬영) ©박하린 ▲

바다보다 깊은 이야기, 득량도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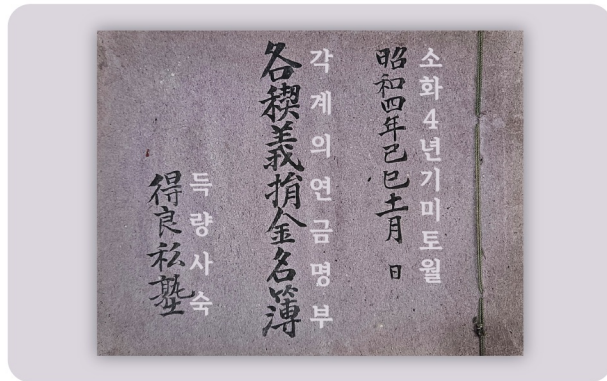
섬의 시간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득량도에 사람이 처음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로 전해 집니다. 황해도 금천에 살던 정륜이라는 인물이 전란을 피해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후 득량도는 장흥군에 속해 있다가 완도군으로 편입되었으며 한때 완도군 득량면사무소가 관청마을에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장흥부에 속한 목장이 있던 곳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흥군 도양읍에 편입되면서 득량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행정구역이 바뀌고, 섬의 풍경도 달라졌지만 득량도는 여전히 바다와 함께 호흡하며 고유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흔적이 머무는 곳 오늘은 관청마을 어민회관으로 향합니다.

관청마을 어민회관 1층 한쪽에는 오래된 캐비닛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을 살짝 여는 순간, 바람이 스치며 종이 냄새가 퍼지고 그 안에서는 약 100년 전 득량도의 이야기가 천천히 깨어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득량사속 각계의연금명부'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소화 4년(1929년)6월'이라는 날짜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고 현대의 '득량도장학재단' 기록을 정성껏 기록해 둔 책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옆에 작은 금액과 함께 마음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웃을 돕고, 마을의 일을 함께 이어가기 위한 약속이 조심스러운 붓글씨 속에 고요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들의 진심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 고흥 득량도 관청마을 어민회관 ©박하린



시간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회의록 한 장을 펼치면 득량도의 주민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운영실 1000원 도선 운영의힘을 위임한다
고양이 장례의전 : 고양이를 좌우 보호하려 육성하고 가정에
기초 광복회와 광과 가정에서 대동과
것

대선장부 1,000원	백야박 800원
개인장부 3,000원	식염 800원
광복장부 2,000원	시멘트 800원
광복장부의 1,000원	계승 1,500원
계승 3,000원	농부/농민 1,000원
승의자 1,000원	사면임비 3,000원
비료 300원	이강 60,000원
방수 100원	어촌계장 20,000원
석유/가스 5,000원	취리선비는 선주와 합쳐
백미/간 1,000원	여결정기로
백야박 500원	

▲ 1999년 8월 6일 회의 내용

회의 주제

- ① 대선 결산 보고 ② 고양이 장례 ③ 득량도 경비 보고

◀ 1998년 1월 5일 회의 내용

회의 주제

- ① 도선 운영 협의 ② 선비 운임 조정

짧은 문장 속에는 그 시절 섬의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도선을 어떻게 운영할지, 선비를 얼마로 정할지, 그리고 마을의 작은 생명까지 함께 보내는 일까지 모든 순간이 섬사람들의 삶이자 공동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득량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자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마음을 전해주는 귀한 증거입니다. 페이지마다 남아 있는 글씨와 그날의 공기가 지금도 종이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잉크가 번진 글자마다 정성과 책임이 느껴지고 정성스레 묶인 책자에는 섬을 지켜온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났던 그날 시간 속에 머물던 이야기들이 빛을 만나며 섬은 다시 한 번 오늘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청마을 어민회관에는 세월을 품은 섬 문화유산들이 지금도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록의 숨결은 지금도 이어져 오늘의 득량도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관청마을 캐비닛에서 꺼낸 득량도의 기록들 ▲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득량도에서는 삼시세끼 필수!

▲ 어업을 준비하는 (왼쪽부터) 김연배 이장, 장순락, 최봉준 주민 ©박하린

득량도의 하루는 밥 한 끼로 시작해 밥 한 끼로 마무리됩니다. 이곳에는 식당도, 마트도, 편의점도 없습니다. 섬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은 바다와 사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득량도의 저녁은 언제나 손수 준비한 밥상으로 완성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철 전어회. 관청마을 김연배 이장님, 장순락님, 최봉준님은 오늘 저녁을 책임질 세 분이 앞바다로 향합니다.

예전 tvN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의 촬영지였던 이곳 오늘은 방송보다 더 진짜 같은 하루가 펼쳐집니다. 바람이 잦아든 오후, 세 사람은 그물을 싣고 천천히 배를 띄웁니다. "오늘은 손님도 있으니 전어가 많이 들었을 거야." 이장님의 말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 관청마을 앞바다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사람의 손길 ©박하린



▲ 막 잡아 올린 득량도 앞바다의 제철 전어 ©박하린

관청마을 선착장 앞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준비가 시작됩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배가 살짝 흔들리고, 조용히 그물을 던지는 손끝에는 오랜 감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물이 바다 속으로 스며들자 도르레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잠시 후, 팽팽해진 그물줄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잡혔다!"는 외침이 터집니다. 그제야 배 위에는 웃음이 번지고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갑니다.

"어제는 300마리를 잡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장순락 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딱 저녁 먹을 만큼만 잡으시다." 그 말처럼, 오늘도 필요한 만큼의 전어를 잡아 마을로 돌아갑니다. 바다 위에서 시작된 하루의 노동은 이내 식탁 위의 따뜻한 저녁으로 이어집니다.



▲ 함께 모여 웃음 짓는 득량도의 저녁시간



▲ 손질된 은빛의 신선한 전어 ©박하린



▲ 고소한 참깨 향이 퍼지는 전어회와 이수자님의 비법 쌈장

갯 잡은 전어는 곧장 회로 손질됩니다. 칼끝이 전어의 살결을 스칠 때마다 은빛 비늘이 반짝이며 떨어집니다. 그 신선함은 바다의 향기를 그대로 품은 듯 한 점을 입에 넣으면 바다와 섬의 공기가 함께 퍼집니다. 이장님이 직접 손질한 전어와 이수자님의 손맛으로 만든 쌈장이 식탁 위에 오릅니다. 막걸리 식초와 참깨가루를 듬뿍 넣어 버무린 전어회, 그 옆에는 따뜻한 웃음과 막걸리 한 잔이 함께 놓입니다. "이 맛이 바로 섬의 밥상이죠." 이장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선으로 식탁을 차리는 일, 누군가에게는 낯설겠지만 이곳에서는 일상입니다.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투박하게 들리지도 모르지만 득량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웃음소리도 커집니다.

누군가는 "오늘 전어가 유난히 달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내일은 바람이 좀 잦았으면 좋겠네"라며 바다를 걱정합니다. 이야기는 이어지고 접시는 어느새 비워집니다. 불빛 아래 반짝이는 전어 한 점, 그 속에는 오늘 하루의 수고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바다에서 식탁까지 득량도의 삼시세끼는 그렇게 사람의 손끝과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살아가는 약속, 득량도의 하루 속에서 이어지다

김연배 관청마을 이장

득량도선장



Q1. 득량도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젊은 시절엔 늘 바다 위에서 살았습니다. 녹동항을 중심으로 40년 넘게 배를 몰며 고기잡이를 했죠. 그때는 선원 두세 명을 태우고 5~6톤 배로 나가 하루 종일 바람과 파도를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다와 함께 지내다 보니 육지보다 바다가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들에게 배를 물려주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 득량도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에요. 그동안 바다에서 얻은 경험을 고향에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장을 맡았습니다. 섬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누군가는 나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지금은 관청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하루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 고흥 득량도 관청마을 (2025년 10월 14일 촬영) ©박하린

Q2. 관청마을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옛날 이곳은 완도군 득량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때 면사무소가 있던 곳이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마을을 '관청마을'이라 불렀죠. 지금은 행정구역이 고흥군 도양읍으로 바뀌었지만 그 시절의 흔적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있던 자리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는 활기 넘치던 풍경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결 조용해졌지만 그 중심의 기운은 여전히 마을의 숨결 속에 살아 있습니다. '관청'이라는 이름은 행정의 흔적을 넘어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을은 예전부터 중심이었다." 그 마음이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3. 득량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매력은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공존의 마음입니다. 섬은 작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큼니다. 어려우면 자연스레 손을 내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의 일, 공동어장의 운영, 수익의 분배까지 모든 일은 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고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왔어요. 관청마을 어민회관에는 오랫동안 기록된 회의록과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득량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다투기보다 나누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촌계 수익이 생기면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도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면 총회에서 인정해 어촌계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득량도는 지금까지 '함께 살아가는 섬'이 되어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음 그것이 득량도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 미래를 준비하는 관청마을 ©박하린

Q4. 요즘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마을 거점사업으로 조성된 캠핑장과 어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설은 이미 완공되었고, 이제 마을이 직접 운영을 맡을 예정이에요. 육지보다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섬을 찾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화장실 같은 기본 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바다가 바로 앞이라 밤이면 파도소리가 들리는 자리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며 섬을 찾는 분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마을을 운영하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작지만 자립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득량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5. 득량도에서의 삶, 그리고 이장님께 '섬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섬에서 산다는 건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더 좋은 섬을 만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웃을 배려하고 마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바다는 날마다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이 든든하게 이어지면 섬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파도는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득량도를 지탱하고 이곳 사람들의 삶을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바다로 나선 김연배 이장 ©박하린 ▶

에디터 이야기

Editor's Note

섬은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된다

말보다 표정으로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짙은 바다의 빛을 닮은 눈빛에는 세월이 스며 있었고 섬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진 단단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이야기는 늘 '사람'으로 시작해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누구보다 섬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주민 곁에 서서 마을의 일상을 함께 지켜갑니다. 관청마을의 하루는 잔잔 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신뢰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득량도의 오랜 약속이자 지금의 온기였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섬의 기록은 결국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섬은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심 없이 흘러온 한 사람의 섬살이

정인곤 선창마을 이장



Q1. 득량도는 이장님께 어떤 섬인가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득량도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오래 전부터 이 섬에서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엔 학교가 끝나면 바닷가로 달려가 돌멩이로 계를 잡고, 해 질 무렵이면 아버지를 따라 포구로 나가 배를 손봤습니다. 바다 냄새와 물결 소리, 그것이 제 유년의 전부였어요. 예전엔 어선이 마을 앞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은 어업보다 농사와 마을 일에 더 힘을 쏟으며 살아가지만, 그때의 몸에 밴 감각들이 여전히 제 하루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섬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Q2. 선창마을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선창마을은 배가 먼저 드나들던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앞바다의 수심이 깊어 배가 드나들기 좋았고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겨났어요. 관청마을이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의 마을이라면, 선창은 바다를 품은 항구의 마을이에요. 고깃배들이 오가고 어민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던 시절에는 마을이 늘 활기로 가득했죠. 지금은 조금 더 고요하지만 파도에 닿는 소리와 사람들의 인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름처럼 선창마을은 늘 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그 시간의 흔적이 지금도 마을의 공기 속에 스며 있습니다.

▼ 고흥 득량도 선창마을 (2025년 10월 15일 촬영) ©박하린



▲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마을회관에 모인 선창마을 주민들

Q3. 득량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득량도의 매력은 바다보다 사람입니다. 이웃끼리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득량도의 가장 큰 힘이에요. 바다가 넓고 풍요로우도 결국 그 안을 채우는 건 사람의 정입니다. 선창 앞바다는 새꼬막과 해삼이 잘 자라는 어장이라 예부터 마을이 활기를 띠었어요. 예전엔 낙지와 키조개도 풍성했지만, 지금은 계절 따라 유자와 농사로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일과 땅의 일이 다르지만 서로의 손길이 닿아야 하루가 완성돼요. 그래서 득량도는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섬입니다.

Q4. 요즘 마을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요즘 마을에서는 둘레길 연결과 상수도 공사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섬을 한 바퀴 돌며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완성되면, 주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득량도의 자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길은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득량도는 물이 맑고 풍부하지만 미래를 위해 상수도 공사를 하고있어요. 섬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건 물이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편의가 좋아지는 일 보다 득량도가 앞으로 더 오래 숨 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섬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 고흥 득량도 선창마을 (2025년 10월 15일 촬영) ©박하린



선창마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인곤 이장 ©박하린 ▶



◀ 에디터에게 선창마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정인곤 이장

Q5. 섬에서 산다는 건 이장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섬에서 산다는 건 느낌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받아들이고, 파도가 높으면 잠시 기다리며 하루를 엽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일도 서두르지 않아요.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사는 법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의 걱정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득량도의 사람들은 그 리듬에 맞춰 묵묵히 하루를 채워갑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섬살이의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에디터 이야기

Editor's Note

섬을 지탱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

정인곤 이장님의 말에는 바다의 리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오래된 파도처럼 마음속에 잔잔히 남았습니다. 섬의 하루를 묻는 질문마다 그는 "사람이 곧 섬이죠"라며 웃었어요. 그 한마디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걷는 길은 늘 바다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깨닫게 됩니다. 섬을 지탱하는 힘은 언제나 서로를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고흥 득량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K-섬잡' K-섬 잡학사전

알면 쓸데없어 보이지만, 알고 나면 쓸모 가득!
이번 달의 키워드는 '도선(渡船)' 바다 위를 오가는 움직이는 작은 다리입니다.

• 도(渡) : 건널 • 선(船) : 배

바다를 건너 사람과 일상을 잇는 특별한 한 글자, 이번 달은 그 의미를 따라가봅시다.

섬을 여행하다 보면 항구 어딘가에서 '도선'이라는 이름을 만납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배처럼 보이지만 도선은 섬사람들의 하루를 이어주는 특별한 작은 다리입니다. 사람과 짐, 자동차까지 함께 태우고 파도 위를 건너며 섬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배. 여행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섬 주민에게는 삶의 길이 됩니다.

정해진 시각이 되면 고흥 북동항 선착장에서 득량 5호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순간, 바다와 섬이 이어지고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도선은 언제나 섬의 시간을 잇는 움직이는 작은 다리입니다.



아래 표에서 도선, 유선, 여객선의 차이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섬 여행 중 만나는 배들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질 거예요!

	유선(遊船)	도선(渡船)	여객선(旅客船)
목적	관광·유람	사람 또는 사람+물건 운송	사람 또는 사람+물건 운송
운항 구역 및 특징	하천, 호수, 댐, 늪 또는 바다 (유락 목적)	하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 하는 해역) 에서 운항 가능	해상이나 해상과 접한 내륙 수로에서 여객선으로 운항
승객 및 물건 운송 여부	주로 승객(관광객 등) *물건·차량 운송이 주 목적은 아님	승객+물건 또는 차량	승객이 주 대상 (물건 운송도 가능)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권있다! 소문내기 금지!

▲ 고흥 녹동항에서 득량도를 향해 항해하는 득량5호 ▲



▲ 섬으로 향하는 시작, 득량도선착장

고흥 녹동항 득량도선착장, 여기부터 이미 기분이 달라집니다. '득량 5호' 정원 30명, 차량 4대까지 태울 수 있는 아담한 배 한 척. 작지만 든든한 이 배는 매일 바다 위로 섬 사람들의 일상을 싣고 오갑니다. 출항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면, 득량도 주민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섬으로 간다!"는 그 한마디가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30분 남짓의 짧은 항해. 하지만 그 안에는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실 막걸리, 텃밭에 심을 상추 모종, 새로 구입한 후라이팬까지 배 위의 풍경은 따뜻하고 정겹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속도를 잠시 내려두면 어느새 섬의 시간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득량도에 닿는 순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조용한 마을의 풍경입니다. 관청마을 포구를 지나 해안가를 걷다 보면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캠핑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밤이면 파도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 수 있고 낮에는 들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아래로 은빛 바다가 반짝입니다. 멀리 장흥과 보성, 고흥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펼쳐지면 괜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싶어집니다. "여기가 바로 장!보!고 명당이에요." 이름처럼 세 지역이 한눈에 '장보고' 보이는 곳이죠.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지점에서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오고, 그 순간 득량도의 시간도 천천히 흐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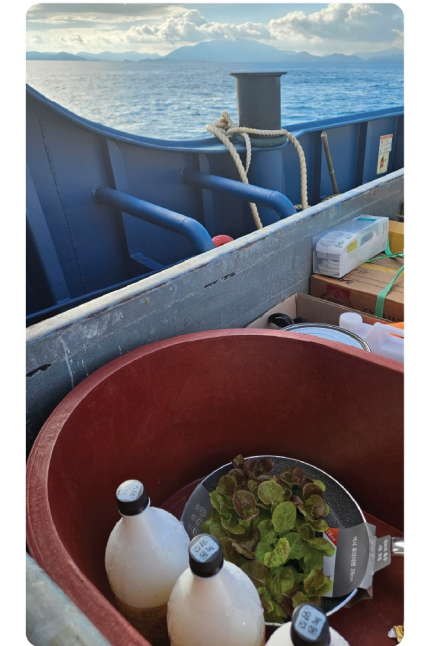


▶ 득량도 주민의 트럭 화물칸

▶ 관청마을 선착장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벽화



▶ 관청마을 추억의 에피소드길



▼ 개장을 준비 중인 득량도 캠핑장



득량도의 길에는 정해진 코스가 없습니다. 관청마을에서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길은 자연스레 선창마을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텃밭, 달콤하게 익어가는 감나무, 그리고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람 사이로 이름 모를 새의 노래가 스며들고,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집니다. 걷는 동안 마음은 잠시 멈추고 그곳의 시간에 머물게 됩니다.

해 질 무렵이면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고 그 빛이 눈에 담겨 마음까지 따뜻하게 번져옵니다. "이래서 섬이 좋구나."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득량도의 여행은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권있다! 정말 소문내기 아깝습니다.

▲ 해가 지면 붉은 빛으로 물드는 득량도 앞바다 ©박하린



◀ 옛 농기구가 멋스러운 선창마을 주민의 창고



▲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선창마을 주민의 텃밭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여수 '백리섬섬길', 국토교통부 전국 최초 관광도로 지정

- ▶ 여수-고흥 있는 6개 해상교량 23km 구간 지정.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핵심축 기대
- ▶ 여수시 "현재 공사 중인 화태~백야 구간 4개 교량과 화태대교는 향후 추가 신청"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교량 6개 구간(총 23km)의 '백리섬섬길'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됐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한다. 백리섬섬길은 여수 남면 화태대교에서 고흥 팔영대교까지 약 39.2km 구간으로, 사장교·현수교·아치교·거더교 등 총 11개의 해상교량이 다양한 공법으로 연결된다.

양진형 기자 | 2025. 11. 13.



한국섬진흥원, 전국 섬 지역 이·통장 워크숍 개최

- ▶ 2025 세계어촌대회 연계... 섬 지역 리더들과 소통·협력의 장 마련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섬 지역 이장 50여 명을 초청해 '섬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ICFC 2025 세계어촌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것으로, 전국 섬 지역 이장·통장들과 중앙 및 지방의 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권병기 (사)전국이·통장협의회 중앙회장의 '전국 이·통장협의회 운영사례 및 역할 소개', 강제운 (사)섬연구소장의 '대한민국 섬의 이해' 강연, 섬 주민의 현안을 공유하는 섬 지역 이·통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섬 이·통장들은 ▲섬 지역의 고령화 ▲의료·교육 인프라 부족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및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성 등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고, 섬진흥원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진형 기자 | 2025. 11. 12.



전남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곳 선정...국비 629억 확보

- ▶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정주여건 개선 '속도'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서 전국 34개소 중 9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898억 원(국비 629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선정 규모의 약 26%에 달하는 성과로 전남도가 해양분야 국비사업 유치에서 다시 한번 전남도의 해양정책 추진 역량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여수 두포항 ▲순천 대대항 ▲고흥 남열항 ▲강진 수인항 ▲해남 학기항 ▲무안 도원항 ▲영광 월곡항 ▲완도 금일관문권역 ▲신안 상태도항 등 총 9곳이다.

김채경 기자 | 2025. 11. 7.

To. 서울·인천 안녕? 우리가 간다! 기다려!

From. 섬코디네이터



서울과 인천을 공부하러 섬코디네이터가 출발합니다.

무안에서 약 6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강화도. 해설력 15년의 연륜이 묻어나는 베테랑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조선시대 철종임금이 왕위에 오르기전 살았던 '용흥궁', 한국 최초의 한옥성당 '성공회 강화성당'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고려궁지'를 탐방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어우러진 고즈넉한 강화도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성공회강화성당 앞에서

▲ 고려궁지의 단풍과 함께

▲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이튿날, 인천 송도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으로 갑니다. 도슨트(박물관, 전시관 등을 전문적으로 안내)의 설명을 들으며, 해설사와 도슨트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앞에서

▲ 인스파이어리조트 조형물 앞에서

▲ 오로라스트리트 방문 인증

오후에는 섬 관광 마케팅 방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복혜정 인천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왕산 마리나', '라면라이브러리'를 견학했습니다. 150m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로드에서 시선을 붙잡히고 그랜드 캐년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에 발길을 붙잡혔다 빠져나왔습니다. 왕산마리나에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있는지 확인한 후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날, 서울 성수동으로 이동하여 행정안전부 섬특성화사업 팝업스토어 오픈식에 참석했습니다. 섬별 주력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산품 들을 활용해 프로그램은 어떻게 홍보하는지 품평회 그리고 시식회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 간 수도권을 견학하며, 해설 스킬 UP! 관광객맞이 스킬 UP! 견문 넓히기 UP! 모든 것이 UP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섬코디네이터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